

울산, 화학공장 악취 공해 “몸살”

2011년 1-9월 민원 44건으로 증가 ... 복합요인에 처벌 약해 되풀이

울산시민들이 뚜렷한 해결책이 없이 해마다 악취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울산시와 5개 구·군은 2011년 들어 9월 말까지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악취 민원이 총 44건이며, 악취기준치의 500배를 초과 배출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이 7곳으로 나타났다고 10월28일 발표했다.

민원은 남구 15건, 동구 11건, 북구 9건, 울주군 9건에 달했다.

2010년 발생한 악취 민원도 총 50건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사업장이 6곳이었다.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악취 공해는 결레 썩는 냄새, 곰팡이 냄새, 계란 썩는 냄새, 식초냄새, 생선 비린내, 양파 썩는 냄새, 화장실 냄새 등으로 다양하고 남구 삼산동, 아음동, 달동, 신정동, 중구 반구동, 병영동, 울주군 온산을 덕신리, 진하동, 동구 방어동, 북구 양정동, 염포동 등 울산 시가지 전역에 퍼져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

울산시가 2001년부터 사업장별로 <악취 지도>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으나 악취 민원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것은 복합 악취가 발생해 배출 사업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기준치를 위반해 악취를 배출했을 때 개선명령에 그치는 등 처벌이 약해 사업장들이 악취공해 저감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되고 있다.

관계자들은 “악취 공해는 여러 사업장에서 한꺼번에 발생하는 복합공해로 특정 사업장을 적발하기 어렵다”며 “악취방지 스프레이를 뿌려 냄새를 중화시키는 등 악취가 도심지로 퍼지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10/31>